



LGU+, 장기 고객들에 한가위 선물 이벤트

LG유플러스는 장기 사용 고객들에게 홍삼, 와인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한가위 이벤트'(사진)를 진행한다. 모바일 이용 기간과 결합 회선 수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 고객 3만5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LG생활건강 리튬 홍삼진 골드, 헤리티지 소비농 와인, 복순도가 막걸리, CJ 제일제당 명절 세트를 증정한다. 우수 고객 12만 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할리스 커피쿠폰, 요기요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일반 등급 이상 모든 장기 고객에게는 LG생활건강몰에서 사용 가능한 'LG생활건강 쿠폰팩'과 CJ더마켓에서 쓸 수 있는 'CJ제일제당 쿠폰팩'을 신청 고객 전원에게 지급한다. 이벤트는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 '당신의 U+'에서 'Thank U+ 등급 조회' 후 참여할 수 있다.

"바삭한 매력" 오리온 '무뚝뚝고구마칩' 출시



오리온이 '무뚝뚝고구마칩'(사진)을 출시했다. 고구마를 껍질째 두툼하게 썰어 푹푹 부러지는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오리온 글로벌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시즈닝을 더해 진한 고구마의 풍미와 함께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맛을 살렸다. 회사 측은 "원물 간식에 쓰이는 자연 재료 중 고구마가 아이스크림과 음료 등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주목해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며 "원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린 다양한 제품을 지속 선보여 원물간식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하지정맥류 심하면 '베나실 치료' 고려 회복 빠르고 통증 등 부작용 거의 없어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안의 판막이 고장나 혈액이 심장으로 가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발쪽으로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다리 부종, 통증, 이상 감각, 혈관 돌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혈관 돌출의 경우 정맥혈관이 늘어져 다리에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파리처럼 부풀어 혹 같이 돌출되어 보인다.

하지정맥류는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다리에서도 발견된다. 하지정맥류는 선천적으로 정맥 벽이 얇고 판막의 수가 적은 유전적인 케이스도 있으나 대부분은 직업, 노화, 압박 의상 등 후천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초기에 발견하면 정맥 순환개선제를 통한 약물치료와 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으로 진행을 막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나,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라면 베나실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베나실은 인체에 거의 무해한 생체접착제를 소량으로 원인정맥에 주입하여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이다. 열을 사용하지 않는 비열치료법이라 열로 인한 손상이나 통증 및 부작용이 거의 없다.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일상복귀 역시 빠르다.

시술한 부위가 당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회복기간에 따라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치료 후 휴면과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사우나 또는 30분 이상의 목욕은 2~3주 후부터 가능하다.

의정부 연세고든병원 이준형 원장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

“친환경차 판매 1위는 그랜저HV...수출도 호조”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현대차그룹의 국내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2009년 7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서 친환경차 판매를 시작한 지 13년 만에 100만대를 돌파했다.

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는 올해 7월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 2만9848대를 판매하며, 친환경차 누적 판매 대수 102만 3484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55만6854대를 판매했는데, 하이브리드차가 38만8344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차가 14만3636대, 수소전기차가 2만4874대 순이었다. 기아는 46만6630대를 판매했으며 역시 하이브리드차가 38만530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전기차는 8만1610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판매를 이끈 차량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2013년 출시 이후 7월까지 18만3837대가 판매되며 전체 친환경차 판매량의 17.9%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 확대를 이끌 핵심 차종인 현대차 아이오닉6와 내년 출시를 앞둔 기아 EV9 콘셉트(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현대차

판매 2위 니로HV·3위 쏘나타HV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판매 선도 수소전기차 넥쏘도 판매량 힘보태 올해 상반기 수출 22만 대 넘어서 E-GMP 적용 아이오닉5 수출 1위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차는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다. 2013년 출시 이후 7월까지 18만3837대가 판매되며, 전체 친환경차 판매량의 17.9%를 차지했다. 그랜저 차량 자체의 인기가 워낙 높은 데다, 친환경 트렌드가 이어지고 경유값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으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2만대 이상이 판매되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를 이끌었다.

2위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가 차지했다. 12만6485대 판매되며 기아 친환경차 판매의 최전방에 섰다. 이어 쏘나타 하이브리드(9만8323대)와 쏘렌토 하이브리드(8만5809대)가 뒤를 이었다.

국내 유일의 승용 수소전기 SUV인 넥쏘는 2만4667대가 판매되며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출시 첫 해인 2018년에는 727대가 판매되는데 그쳤지만, 이후 수소수출전소 인프라가 확대되며 2019년 4194대, 2020년 5786대, 2021년 8502대 등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수출도 고공성장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판매 흐름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 부문에서는 전기차가 고공성장을 이끌고 있다.

7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 1~6월 친환경차 수출은 22만 4672대로 작년 같

은 기간(17만1468대)보다 30.6% 증가했다. 현대차는 11만6770대, 기아는 10만7902대를 수출했는데, 현대차그룹의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이 20만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친환경차 수출 대수가 4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전기차가 친환경차 수출량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가 2만9109대로 가장 많이 수출됐고, 2위는 기아 EV6가(2만8814대)였다. 전기차 대전환의 시대에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기아 니로 EV(1만3563대)와 현

대차 코나 EV(9942대)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수출은 9월 현대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6 출시와 내년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출시가 이어지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의 국내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오닉5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4만876대가 판매됐고, 기아 EV6는 2만6230대, 제네시스 GV60은 5127대가 각각 판매되며 누적 판매대수 7만2233대를 기록했다. 하반기 아이오닉6까지 가세하면, 올해 안으로 10만대 판매를 가늠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다시 글로벌 관광의 중심으로”...‘서울페스타’ 10일 화려한 개막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개막식 진행 13·14일 국내 첫 전기차 경주대회

코로나 이후 모처럼 서울에서 열리는 대형 글로벌 관광 이벤트 ‘서울페스타 2022’(SEOUL FESTA 2022·사진)가 10일 시작한다.

‘서울페스타 2022’는 서울 잠실 주경기장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10일 오후 7시50분에 시작하는 잠실 주경기장 개막식은 3만5000여 명의 국내외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싸이, 비 등 K-팝 스타들의 축하무대가 펼쳐진다. 개막식은 KBS 2TV를 통해 생중계되며 KBS월드를 통해 118개국에 송출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개막식 입장객을 잠실주경기장 최대 수용인원(최대 6만9000명)의 절

반 수준인 3만5000명으로 축소해 운영한다.

13일과 14일에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국내 첫 전기차 경주대회 ‘2022 서울 E-프리’(2022 SEOUL E-Prix)가 잠실 주경기장 일대에서 열린다.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53m의 대형 미디어월을 설치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서울페스타 개막식과 서울 E-프리 경기 및 시상식을 상영한다.

김재필 기자 oldfield@donga.com



삼성, NFT를 오프라인 실물 혜택과 연결

신라면세점 등과 NFT 생태계 구축 뉴 갤러리 NFT 보유 고객에 혜택

삼성전자가 온라인 가상 세계의 NFT(대체불가토큰)를 오프라인 실물 혜택으로 연결한다. 삼성전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이크루즈 본사에서 디지털프라자, 신라면세점, 이크루즈, 쇼골프, 세타랩스(NFT 발행 파트너), 올링크(인증 솔루션 파트너) 등과 ‘뉴 갤러리 NFT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의향서(MOU)를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월 블록체인 기업 세타랩스와 제휴해 ‘갤럭시S22’ 시리즈와 ‘갤럭시탭S8’ 시리즈 사전예약 고객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디자인을 형상화한 뉴 갤러리 NFT를 디지털 기념품으로 증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뉴 갤러리 NFT를 보유한 고객이 디지털프라자, 신라면세점, 이크루즈, 쇼골프 등의 사용처에서 인증하면 할인 및 적립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상진 삼성전자판매 B2B그룹장, 이신우 삼성전자 한국총괄 프로, 미치리우 세타랩스 CEO, 정동성 신라면세점 부점장, 박동진 이크루즈 대표, 홍성환 쇼골프 본부장, 김경중 올링크 대표. (왼쪽부터) 사진제공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NFT를 활용해 가상 세계와 실물 세계를 연결하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혁신할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0일에 공개되는 폴더블 신제품의 사전 구매 고객에게도 뉴 갤러리 NFT를 증정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